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48호
5월 11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제72차 총회 제12회 임원회

‘최저출산국가 극복 전국민 동참해야’

북의 핵도발 강력한 대응 한미동맹 공조강화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12회 임원회가 지난 4월 23일(화) 오전 11시 갈릴리큰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조선훈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담후 4:6-8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자에게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72차 마지막 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칭찬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사도바울처럼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수고하신 모든 임원 분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수여됨을 믿는다”고 강조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정진균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백영자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조선훈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4월 2일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과 4월 2일 부산지방회 통합감사예배, 4월 11일 교정선교회 모임, 4월 15일 교단 정책위원회 모임, 4월 18일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사임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은퇴/원로 보고, 교역자소전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다.

경기사부지방회 설립요청건과 총회직속지방회로의 전출건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으며 기타사항으로 제73차 정기총회가 오는 5월 20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되는바 오전 11시부터 등록하고 오후 1시부터 개회예배, 오후 2시 30분 사무총회 및 기도회가 개최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감염병 공식 종료 선언 후 강력한 독감을 비롯 최근 특이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잘 점검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세계 최고의 저 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말씀왜곡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시 118:6,7)



조용묵 목사

“하나님은 내편이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만사에 기대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편이시다.”라는 말이 실제이며 사실과 부합하는 말이 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려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를 듣고 코웃음을 쳤던 애굽 왕이 결국은 모세에게 절절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닥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듯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에 엄청난 위력이 따랐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한 대가였습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하여 이스라엘은 침략당하거나 앗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략할 방도를 알아보려고 성으로 접근하는데 위풍당당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이한 전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자 여리고의 철벽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라고 한 대답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네 편 되기를 원하거든 네가 먼저 내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살펴서 그 말씀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일으킨 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심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한 태도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 사도들의 이 대답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보다 대중들의 태도에 더 좌우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욕에 좌우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편에 서서 행동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고 노력하고, 진실을 알면 진실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품성이므로 하나님은 진실을 찾고 진실 편에 서는 그 사람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라고 말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제73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부총회장 후보



이인호 목사
홍제은혜교회

총무 후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후보



장동근 목사
순복음거제중앙교회

재무 후보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회계 후보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2024년 4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재영
서기 목사 조길수

나부터 캠페인, 축소시대를 맞는 우리

‘축소시대가 달려온다’ 주제로 제2기 사역 첫 포럼 개최

저출산,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축소사회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일까? 우리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실천을 도모하는 ‘나부터 캠페인’ (대표 류영모 목사/ 이하 나캠페인)이 지난 4월 29일(월) 드림하우스에서 ‘축소시대가 달려온다’를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했다.

어느덧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축소’의 개념은 인구, 경제, 기후, 질병, 주거, 일자리 등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나캠페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축소시대’를 어떻게 하면 인류의 행복을 위한 균형잡힌 사회로 이끌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 출범한 나캠페인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최근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며, 이번엔 첫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포럼의 발제는 ‘수축사회’의 저자 홍성국 국회의원이 ‘수축사회의 현상’에 대해, 아주



대 최진호 교수가 ‘저출생 축소시대의 행복론’을 각각 발표했고, 교계 오피니언 참가자들이 발제 내용을 놓고 심도깊은 토론을 펼쳤다. 사회는 CBS 박옥배 전 아나운서가 맡았다.

먼저 홍성국 의원은 “산업혁명 이후 팽창사회는 모든 것이 커지고 증가하는 시대였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끝나면 수축사회가 본격화될 것이다”며, “우리는 축소사회의

도래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유연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미래와 만나야 한다. 점차 줄어드는 인구 속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함께 행복한 ‘성숙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중장년 세대의 양보와 인신전환, 그리고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노력이 “나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 ‘리멤버 투게더’ 개최

6.25 참전용사들에게 위로와 감사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4월 25일(목)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 팽성읍 길위의 교회(정용준 목사시무)에서 ‘리멤버 투게더’ 첫 행사를 진행했다. 리멤버 투게더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자 또는 북한 포로로 잡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참전용사의 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사

업으로 한교연이 호국 보훈의 달을 6월 본 행사에 앞서 진행했다.

이날 한교연은 주한미군사령부 군종부실장인 페인 조슈아 목사(종령)의 삼촌 등 가족 4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리멤버 투게더’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주한

미군사령부 정문에 옆에 위치한 길위의교회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거행했다.

조슈아 목사는 참전 용사 4명중 현재 유일한 생존자로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씨(95세) 자택을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연결해 6.25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소화를 나누었다. 로버트 씨는 영상에서 “한국전쟁에 참전에 맥아더 장군을 보좌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산군과 싸우다 많은 전우들이 전사했는데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된 나라이 되고 특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를 믿는 국민이 많다는 소식에 감사한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감격해 했다.

삼촌을 대신해 감사패를 받은 조슈아 목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 감사하다”라며, “5월에 미국으로 돌아가 삼촌인 로버트 씨에게 감사패를 꼭 전해주겠다”라고 했다.

5개국에 21,070부 성경 보내

서울광영교회(4개국) · 정음중앙교회(1개국)의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는 지난 4월 26일(금) 서울광영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4개국에 성경 18,87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번에 보낸 성경은 부르키나파소-비사어 성경, 레데어 성경 6,000부, 멕시코-홀어 성경 3,500부,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어 성경 1,270부, 잠비아-통가 잠비아어 성경, 영어 성경 8,100부 등이다.

서울광영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우리가 제작하여 반포하는 이 성경을 통해 비사, 레데 부족들이 최초로 자신들의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읽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광영교회를 들어 사



용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을 전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드라마 양키네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후원해 준 서울광영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국제마약대 서울캠퍼스, 이사장 추대

이사장 안봉웅 목사, 이사 양창부 목사 등 추대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서울캠퍼스(총장 양창부 목사)는 지난 4월 27일(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서울캠퍼스 강당에서 안봉웅 이사장 추대 및 이사 임명 감사배를 드리고 마약퇴치 및 근절을 위한 전문

가 양성에 힘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류한상 목사의 사회로 박정호 목사의 대표기도, 복음가수 김옥희 전도사의 특송, 원로목사회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문 목사는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명과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영혼구원이다. 맡은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월계관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이사장 안봉웅 목사에 대한 추대대 증정 및 이사 양창부, 강말희, 류한상, 황영철, 오세영에 대한 임명패 수여, 감사 문헌호, 임화영에 대한 임명패 수여가 있었다.

거룩한방파제를 세우고자 나섰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

대구 JDR(Jesus Do Right)이 최근 “대구 중노회남전도회와 광진중앙교회 청년부 연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 동성로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 그리고 할랄벨리 조성, 쿠퍼축제 등의 논란에 맞서 거룩한방파제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114차 화요 집회에는 대구중노회 남전도회연합회(회장 권종식 장로)가 전반기 차별금지법 및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및 쿠퍼축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예배에 앞서 대구동부교회 오병이 노방전도팀은 즉석에서 불어뿜을 굶고, 남전도회 회원들이 이를 전도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나누며 전도했다.

관계자는 “불어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



였다”며 “예배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해 미리 준비한 천막을 설치하고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회에 참석자들도 자발적으로 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광진중앙교회 청년부는 한 달에 두 번씩 화요집회를 이어왔다. 이날은 찬양 인도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중노회 산하 남전도회 회원들뿐 아니라 학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

기까지 1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관계자는 “청년들이 연합해 비가 오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열굴 찌푸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모습과 찬양과 율동으로 뜨겁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행사에 참여한 장년 크리스천들이 감동받았다”며 “청년이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장총, 제44회기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노성배 장로(기성) 선출



한국장로회총연합회(이하 한 장총)는 지난 4월 26일(금)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노성배 장로(기성, 임마누엘교회)를 추대했다.

17개 교단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는 유완기 장로의 사회로 각부 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임원선거는 김경래 장로의 전형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은 총회는 한장총 제44회기 신임원을 인준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 노성배 장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종교, 교단, 이념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종식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본연의 연합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완기 장로는 43회기를 함께 동역한 17개 교단 공동회장과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임회장 노성배 장로에게 회기와 의사봉을 전달하며 축하와 기대를 전했다.

신임회장 노성배 장로는 전임회장 유완기 장로에게 공로패와 금배지를 증정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편, 회무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에는 유완기 장로의 사회로 최내화 장로(명예회장)의 기도, 이문규 장로의 성경봉독, 류승동 목사(기성 부총회장)의 고전 15:57-58 말씀을 본문으로 한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가정 밖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식

프랭크스 · 유지영 소속 패션모델 30명 참여

서울YMCA는 지난 4월 25일(목) 오전 11시, 서울시립일시정소년쉼터(위탁법인인 서울 YMCA)와 프랭크스 소속 패션모델, 유지영 디자이너 소속 패션모델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기량 프랭크스 대표와 유지영 디자이너 소속의 패션 모델들은 “청소년 쉼터를 홍보하고 시민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기량 프랭크스 대표는 “패션모델들의 한결같은 한결같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유지영 디자이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의상이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찬모 서울시립일시정소년쉼터(이동형 서북) 소장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모델들과 같이 자신의 몸을 건강히 지키며 생활에 가치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새겼다.

서울시립일시정소년쉼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솔 및 비행을 예방하고, 가솔 청소년의 긴급생활지원, 상담 및 교육, 가정 · 사회로의 복귀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YMCA는 서울시립일시정소년쉼터(서북

권 · 서남권)과 서울시립용산일시정소년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프랭크스 박기량 대표는 해외 팬들에게 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K-POP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오는 5월 5일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2024 GLOBAL K-POP FANSHION SHOW”를 단독으로 주최한다. 이번 패션쇼에는 전 세계 대형 기획사들과 K-POP 아티스트 및 모델을 지원하는 키즈, 주니어 15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 채플린협회-국제크리스찬채플린협회 MOU

채플린 교육 협력, 이수자 전원 수료증 발급

한국교회의 채플린(Chaplain) 사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 교육 과정이 도입된다. 미국의 정규 채플린 과정을 한국 목회자들에 소개하고, 직접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 채플린 사역 지역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채플린협회(대표 김다니엘 목사)와 국제크리스찬채플린협회(대표 전도세 목사)는 지난 4월 29일(월)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내 사무실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채플린은 기관, 단체의 영성 지도를 맡은 목회자를 통칭하는 말로, 흔히 군대의 ‘군목’, 병원의 ‘원목’, 경찰의 ‘경목’, 학교의



‘교목’ 등이 대표적인 채플린에 속한다. 이번 MOU에 나선 국제크리스찬채플린협회는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채플린 연합단체

로 한국인 전모세 목사가 그 대표를 맡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미 오리엔트카운티 라하브라시 경찰청 소속 채플린으로 활동 중이다.

전 목사는 “김다니엘 목사님과 오랫동안 동역해오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미 채플린협회와 MOU를 맺게되어 정말 감사 드린다”며 “채플린 제도는 AI로 대변되는 고도화된 직업 사회에 더욱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MOU가 양국 교회와 기독교 부흥에 큰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채플린협회 대표 김다니엘 목사는 상당히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미국의 채플린 교육 과정이 한국교회의 채플린 사역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생명의 말씀



오일선 목사

· 충남지방회 전임회장
· 순복음포도원교회 담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성도들이 죄악세상에서 구원 받은 사건의 예표입니다. 둘째,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중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게 되었으며, 그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받는 복

(신 16:9-17)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찌니라"(신 16:12) 그러면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 삶의 만족과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매사에 원망과 다른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는 생활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국의 신앙가요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법사에 감사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불평과 불만이 치료됩니다.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답게 됩니다. 법사에 감사하며 살 때 좋은 친구가 많

이 생깁니다. 고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됩니다. 건강이 좋아 집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감옥에 쇠사슬로 묶인 채 수감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들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얹어매고 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의 가정의 하나님이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삶의 만족과 기쁨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재물이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 4:6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욕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귀의 시험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10남매의 자녀가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도 많았던 재산이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고, 건강하던 육체마저도 병이 들어서 욕임

지 아닌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욕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 속에 있던 환경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욕 42:12에 보면 "여호와께서 욕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여리와 양니귀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라고 했습니다. 욕이 법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그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십일조만큼은 철저히 드렸다고 합니다. 한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불에 동동 뜨는 엉터리 비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장님은 그 비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오르는데 묵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누 이름을 '아이보리비누'라고 지어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누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재물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 육간에 부요의 복을 배풀어주십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하란 땅에 내려가서 외삼촌의 양을 기르는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품삯을 열번씩이나 준다고 말하며 안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법사에 감사함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영국에 스펀전 목사는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재물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영 육간에 부요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법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전주 예수병원, 영화제 의료지원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석)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공식 의료지원에 나섰다. 예수병원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영화제 기간, 의료진 안전부스를 설치하고 '안전 지킴이' 임무를 수행한다. 상영관과 행사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메인 행사장에 전담의료팀과 전용 구급차를 지원했다.

통일부 남북 선교사 위해 기도당부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지난 4월 20일(월)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호 장관은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는 요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CTS부흥협, 대표회장에 승창호



나라와 민족·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CTS 기독교TV CTS부흥협의회가 지난 4월 26일(금) 아산서원교회(담임 송창호 목사)에서 'CTS부흥협의회 송창호 목사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임명 및 인사와 축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창호 목사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장학기금 조성 바자회



서울 서초구 흘리씨즈교회(담임 사대천 목사) 교회학교 SDC 인터내셔널스쿨이 지난 4월 27일(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제12회 천사데이 찬스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총 매출액 2억 7천여만 원을 기록, 매출 목표였던 1억 5천만 원을 크게 넘어섰다. 학생들은 행사에 앞서 수차례 홍보를 위한 버스킹 공연을 열기도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용어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히 판치게 됨)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172명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 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5월 9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른다.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의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찰 권력

을 심판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신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형식이었다. 사실 검찰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큰 권력을 가진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한한 권력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범죄자들뿐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의 검찰 축소와 힘 빼기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나섰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에 있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부패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검찰은 헌법에도 나타난 수사과 기소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대수의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검수완박'이 이뤄진 한국 상황을 국제 사회가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역사상 모든 일에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이고, 수사기관의 역량으로 범죄 없는 나라,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를 막는 역할은 검찰이 아니라는 불가능할 정도로 보인다. 한국에서 2022년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일 때, 그리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한국

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의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3월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책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의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내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2024
출중한 군사 14기
5.15 - 17

Keep words in mind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6-7

장소 | 괴산순복음교회 (충북지방회) 문의 | 010 - 5145 - 3816 회비 | 없음(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ENHAKKORE MINISTRY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12회 정기총회

고문 최혜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전직 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전직 회장 최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직 회장 신동진 사모
청산교회

전직 회장 차추원 사모
안동성곡교회

전직 회장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직 회장 김기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1부회장 이윤순 사모
갈릴리크리스찬교회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관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조은숙 사모
경향교회

사기 나명숙 사모
상주장성교회

부사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재무 조동숙 사모
오성사모교회

일시 2024년 5월 20일(월)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 예배후 사모회 총회)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3층 세미나실

참석대상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교단산하 전국교회 목회자 사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명희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4월 26일(금)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 소재 새로운교회에서 73차 교단정기총회를 준비하며 2024년 4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행 1:1~11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으므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며 세월을 아껴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라지방회 교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총회와 교단 임원과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으며 전임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점명과 총무 서기

회계 보고를 간단히 마친 후 5월에 있는 교단정기총회를 함께 준비하는 차원에서 후원을 하기로 결의하고 최규식 목사의 기도으로 4월 월례회의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새로운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애잔과 다과를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회포를 나누고 더욱 하나되어 교단을 위해 섬기는 모범적인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레선교교회 창립감사예배, 복음전파 헌신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4월 15일(월)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가야로 463번길15에 위치한 이레선교교회(담임 이택규 목사)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전파사역에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안미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골 1:25~29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사가 하나님의 경륜 즉, 영의 세계 속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닫는, 주님 쓰시기에 귀



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며 세워가는 종과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임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사, 전임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권면, 이택규 목사(이레선교교회)의 감사인사 후 전임회장 조정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이레선교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고영권 목사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함께한 뒤, 교회 1층 카페에서 차와 다과로 답소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정기지방회 개최하고 신임원 선출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홍종학 목사)는 지난 4월 8일(월) 부안순복음교회(담임 홍종학 목사)에서 제 40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훈배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바울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전숙희 목사의 성경봉독, 직전회장 고현진 목사의 고후 12:7~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제목의 설교 후, 지방회장 홍종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의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신임원을 선출했는데, 지난 회기 임원 모두를 유임하기로 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지방회장 : 홍종학 목사(부안순복음교



회) △ 부회장 : 김바울 목사(정음은혜와진리교회) △ 총무 : 김훈배 목사(꿈이있는교회) △ 재무 : 전숙희 목사(은혜와사랑교회)

이어 부안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부산지방회 월례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4월 22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안미교회)의 대표기도,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 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요일 3:13~1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깊이 새기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통합을 통해 서로를 나보다 귀히 여기자. 사랑과 겸손으로 나와 다른 부분들



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의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헌금기도,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총회 참석 건에 대해

성실히 참석할 것을 권면하고 지방회의 사안들을 토의한 후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의 기도으로 월례회 마쳤다.

월례회를 마치고 지방회원들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며 사역의 비전들을 나누고 총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생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련.
-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 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동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전형료 :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우 필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마약 절대로 안된다”...예방예산 절실

김지연 대표 청소년 마약 예방포럼서 역설

지난 4월 27일(토)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포럼 ‘건강한 선택 빛나는 미래’가 개최됐다.

황교안 비전캠프와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사회 이성용 목사), 2부 포럼(사회 노영애 목사)으로 진행됐으며, 광석훈 대표(한국청년 마약예방총연합회),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캅아카데미), 이동욱 센터장(마약퇴치운동본부), 신용원 이사장(소망을 나누는 공동체)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김지연 대표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방역’을 해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현장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영감을 불어넣어줄 건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약 재발을 하기 위해 일단 의학자가 붙어야 하고, 단약 과정을 거치기 위해 단약 상담가가 필요하고, 치료사가 필요하다. 분리시켜 재발을 도와줄 공간이 필요하다. 1년에 5천만 원을 부어도 재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지금 경북에서 대마초를 키우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국가가



아니다. 이 선에서 멈춰야 된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 포화된 나라를 보면 처음에는 마약 확산을 방인한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미국 COYAD 총재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마약 허브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마약이 확산돼 마약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워지니 2차 범죄만 단속하게 된다. 나중에는 결국 마약할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작년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 사범 수만 500명, 청장년 마약 사범 수는 2만 4,500명이다. 마약은 암수성(실제 범죄가 드러나도 잠기간 감춰지는 특징) 때문에 이보다 30배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0.65로,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정확한 위당을 가르치며 피드백을 받아내고 있다”고 했다.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퀴어축제 막아야

“6월 1일, 퀴어 전쟁을 끝내러 왔다” 긴장 늦춰선 안돼

반사회적 악법과 동성애퀴어축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방과제의 통합국민대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통합국민대회는 이제 제는 국민통합 문화축제로 자리잡으며, 국민과 온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문화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는 오는 6월 1일

오후 1시 서울 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그간 동성애퀴어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동성애퀴어축제에 내주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기에 통합국민대회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한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오정호 목사,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

는 지난 5월 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대회의 의의와 목표를 설명했다.

인사를 전한 이용희 교수는 이번 국민대회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지키는 진정한 거룩한 방과제를 굳게 세우는 날임을 확인했다.

전 국민이 거룩한방과제가 되어 이 시대의 불의를 막아내야 한다는 신념이다.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 법치 문란 우려 <논평>

BBC 등 해외 언론의 한국 총선 결과에 나타난 법치 문란 보도는 한국사회 법치 난맥상 보여주고 있다

BBC(영국국영방송),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의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법치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 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와 이들을 대표로 선출한 한국인들의 법치외식 실종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이대로亡할 것인가?” 대한민국 총선을 본 영국 BBC방송의 따끔한 총평이다.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망한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다. BBC가 우려하는 바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절망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BBC가 지적하는 바 같이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오늘날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성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BBC는 1952년 정치파동 때 대한민국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바랄 수 있는가 방송한 권위 있는 방송이다.

외신(外信)은 지난 총선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 정치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 커녕 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김영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살탐니베는 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음 같이 이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한국의 지극히 일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 재판 지연과 이중 잣대 판결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들 해외 언론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2중 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벌친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탄형 정당을 출마하자 이 정당은 제3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준법외식의 부재 및 무감각 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한국정치는 삼류(三流), 정치인들은 도덕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50개 이상의 외신 구락부가 시시각각으로 한국 정치를 보도하고 있다.

BBC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으로 나라를 망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노출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에 동의하고 있다.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외신에 의하여 평가 받을 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고립된 섬의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 정치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당파싸움, 극한 대립 보복정치로는 이제 국민 소득 3만 5천 불에 도달한 선진사회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 미래로 펼쳐나갈 수 없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관, 사법관, 청빈함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범점을 설치하 할 때이다

3. 거대 야당 입법부가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 6명이 민주당 지배의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 후 이들은 선거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야당 당수를 재판하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거대 야당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하겠다는, 사퇴결의안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상이다.

4. 사법부에서 재판의 판결 연기, 편향된 재판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느 인사는 울산 경찰청장으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21대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임기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1심에서 3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되어 지난 4월달에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총선에 출마하

여 22대 국회 선거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한 인사는 1심, 2심에서 유죄받았으나 피고인 변호권 보장으로 법정구속 되지 않음으로 연동형 비례제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리하여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역 2년형(2심) 당대표에 이어 정역 3년형(1심)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다. 선거 후에 그는 대법원에서 자기 사건의 무죄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연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야당 대표는 77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건은 2년이 넘었는데(법정 기일은 1년 안에 판결)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다. 사법리스크에 있는 야당 대표는 총선에 이김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떠 밀려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 하자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하여 이재명은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왔다는 아이러니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BBC는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긴 22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과 편향된 재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려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하여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판결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외 언론 기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 편향,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 법관에 대하

세기총,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전기현 장로 대표회장에 만장일치 연임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4월 24일(수) 오전 9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킥스 콤플렉스 호텔 ‘제12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12대 대표회장에 전기현 장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셨고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대표회장으로 역할을 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새로운 회기 세기총 회관을 마련하고 자유·평화통일 기도회 등을 진행하는 등 세기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1부 개회 예배는 공동회장 권케더린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태성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의 성경봉독 후 8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세기총의 사명’(막 16: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 순서에는 상임회장 이상열 목사가 ‘나라와 민족 및 위정자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장금주 선교사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콜롬비아 지회장 김선훈 선교사가 ‘더-우, 이-팔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예장개혁 이현숙 목사가 ‘3만 한 국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각각 기도했으며,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회 회무는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의장인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내빈소개, 서기 박광철 목사의 회원 점령 후 의장 전기현 장로가 개회를 선언했다.

서기 박광철 목사의 회소체택과 전 회의록 보고 후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지난 회기의 사업보고 및 대표회장 활동을 (영상)보고했으며, 감사보고와 회계보

고가 이어졌다.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황의춘 목사가 발표한 정관 개정 내용은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신임대표회장에는 총회 대의원 만장일치로 전기현 대표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이어 운영위원 구성과 임원 인선,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마친 뒤, 신·구임원 교제 후 7대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격려사를, 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의록 채택 후 멕시코 지회장 정득수 선교사가 제12회 총회선언문을 발표한 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폐회선언과 공동회장 전희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제12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는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태수 목사(미동북회장)의 기도, 공동회장 이승현 목사의 성경봉독 후 5대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Arise & Shine’(사 60: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은 신임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취임 인사 후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가 신임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제4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싱가포르기도회도 진행됐다.

한편, 개회예배에 앞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현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했다. 세기총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특성화고 학생 대상 취업컨설팅 제공

성결대,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 펼칠 예정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4월부터 10월까지 특성화고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특화 청년 꿈드림 찾아가는 취업컨설팅(특성화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취업컨설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안양, 군포, 광명 등의 인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참여 인원은 지역 총 5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5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결정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각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희망과 필요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강 주제는 MBTI 검사를 활용한 진로탐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및 피드백, 직장예절교육,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이해, 노동법 등 다양하다.

현직에 있는 각 분야의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실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준비의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성아 처장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의지와 능력을 높여 성공적인 진로 결정과 취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신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제16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아신대학교 부설 ACTS 신학연구소(소장 허주 박사)는 4월 30일(화)부터 5월 1일(목) 3일에 걸쳐 학교 강당에서 제16차 ACTS 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신대 개교 50주년 개교를 기념하면서 “ACTS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이란 제목으로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 초대 원장 마삼락 박사, 초대 부원장 한철하 박사, 이렇게 3인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다.

이들이 어떻게 ACTS(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설립 및 이후 발전에 공헌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4월 30일(화) 첫째 날 안경승 교수(목회상담학)의 사회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임희국 박사(장신대 명예교수)는 목회자 한경직(1902~2000)의 삶과 신앙을 추적하면서 영락교회 목회(1945~60), 동아시아 중심 교회연합적 국제활동(1950년대), ‘민족복음화운동’ (1960년대 중반~1980년대), 그리고 국내 및 해외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 속에서 한경직이 어떻게 ACTS 설립에 공헌할 수 있었는지(1966~74) 그 시대의 환경을 다층적으로 조명해 주었다.

더불어 임 박사는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ACTS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설립 비전에 따른 선교적 교육 가치가 분명하기에 21세기에도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기를 당부하였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전파

어둠에 가려진 진실의 빛이며
지는 노을 앞산 길 물들일 때
황혼길 나그네 시름 스어 넘는 저 구름 뒤에
찬란한 눈물이 되었다.

아, 태평의 세월이며 불의와 불법이 해돋이가 되었던가.
일그러진 영웅들이여 푸른 하늘 드높은 창공을 바라보라.
헛된 욕망은 부질없는 꿈을 잠재우고
픈 구름은 하루살이 모래성을 쌓았노다.

너 탐욕이며 오만의 웃을 입이라.
너 악이며 네 얼굴을 분칠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밭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슬프다 인생이며 하루를 살아도 천년으로 살라.
기억하자 천년을 산다한들 예수있는 하루에 비견하라.
앞산 봉우리 우뚝 선 고목이며
청아한 녹음단장 순전한 무욕의 표상이라.
아, 내 영혼의 고향 신령한 믿음의 지평선 넘어

맑고 밝은 아름다운 주의 지성소 있어
오늘 나 여기 거하며 주께 수종 들리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시 37: 28)
끊어지리로다. 아멘!

복음전파 삼천리 방방곡곡 코로나 때에도 쉬지 않고
오라하면 오고 가라하면 가는 전도, 서라하면 서는 전도.
이제는 일본과 대만, 미국, 뉴욕, 워싱턴, 메릴랜드,
뉴저지, 방그라데시의 무슬렘과
6월에는 필리핀, 10월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미국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시네.

이글을 읽는 독자들이여,
사랑과 관심으로 가족세트전도에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가족세트 총괄부장이수 교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부 팔찌 출시

“생명과 생명을 잇는 약속의 상징, 리본 팔찌 캠페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명과 생명을 잇는 약속’을 의미하는 “리본 팔찌”를 출시하고, 11월 말까지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본 팔찌는 장기부전 환자들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팔찌로,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의 연대를 상징한다.

생명과 생명을 끊임없이 잇는 리본 팔찌 팔찌에 새겨진 ‘Re-Born’은 리본의 동음이의어로, 적역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장기기증을 통해 이식인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한대 모양(∞)의 펜던트는 생명나눔을 통해 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고,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펜던트 라인을 따라 들어간 포인트 컬러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리본의 초록색을 사용했다.



팔찌의 무게는 6g으로 무척 가볍지만, 장기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묵직한 함의가 담겨 있다. 펜던트를 중심으로 뻗은 두 가지 모양의 체인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장기기증인 및 장

기기증 희망등록자를 상징하며, 생명나눔을 뜻하는 펜던트가 이들을 단단하게 잇고 있다. 또한, 각각의 체인의 동일한 모양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바라는 모든 참여자의 하나같은 염원을 나타낸다.

생명나눔의 더 나은 내일을 염원하는 리본 팔찌 캠페인

생명과 생명을 잇는 리본 팔찌는 월 1만 원 이상의 장기후원을 신청한 후원회원들에게 증정되며 기존 후원회원은 추가 후원 참여로 ‘리본 팔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수익금은 장기부전 환자 지원금 이외에도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사업과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 생명나눔 및 존중 교육 등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가치와 감동을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소년’ 인식 증진 캠페인

월드비전, 배우 공명·GS25와 함께 5월말까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편의점 GS25와 함께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가족 돌봄 청소년의 존재와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축정을 통해 실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월드비전은 5월 31일까지 전국 1만 8천500

여 개의 편의점 GS25에 가족 돌봄 청소년 인식 증진 포스터를 부착한다. 포스터에는 가족 돌봄 행위를 7가지 그림으로 나타내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직접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내 GSTV가 설치되어 있는 3천여 개 지점에는 관련 홍보영상을 함께 송출해 캠페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응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랜딩 페이지로 연결돼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응원문구를 남길 수 있다. 응원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편의점 GS25 모바일 상품권(1천 명)을 제공한다.

GS25는 지난해에도 월드비전 김해사 친선대사와 함께하는 ‘해자로운 도시락’을 필두로, 해자로운 도시락 나눔 캠페인 활동인 ‘안나의 집’ 등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제리캔챌린지’를 통해 유어스 맑은샘물 등 2천만 원을 기부하며 착한 마케팅의 리더답게 대한민국 대표 ESG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염보다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50,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신발장수 아들 둘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나막신(나무로 만든 신으로 비오는 날에 신는 신발) 장수, 작은 아들은 짚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의 근심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짚신파는 작은 아들 걱정, 반대로 햇볕이 나고 날이 좋으면 나막신파는 큰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머니의 근심은 아들 둘의 직업 때문에 오는 근심이라기보다는 그의 생각에서 온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짚신 파는 아들의 장사를 걱정하기보다 생각을 바꾸어서 나막신 파는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앤더슨은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관점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의 아이들과 보호자로 보이는 남자가 탔습니다. 조용하던 지하철 안은 별안간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던지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신문을 낚아채고 사람들의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구두를 밟고 뛰어다니며

떠돌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참다못한 앤더슨은 자신의 옆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 되는 남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남자는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가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나는 지금 그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앤더슨은 지금까지 이 버릇없는 아이들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편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변하고 나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주님의 선물

넓은 세상

이 큰 꽃밭

누가 다~ 채운걸까?

오색빛깔 어우러져

온 세상이 잔치 마당.

설렘과 기대감의 하루 여시며

“네게 보낸 나의 선물 맘에 드느냐?”

마음 문 열고 자세히

꽃밭을 보니 곳곳에서

보이는 주님의 하트



이른 아침
하룻밤사이 꽃이 만발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아침에
세상의 모든 꽃밭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는다.

사설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감수룩 산이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지난해 함께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 출산율 0.78명 때도 해외 언론과 학자들은 ‘한국은 망했다’, ‘중세 흑사병 보다 더한 인구격감’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뿐이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2년 만에 0.78명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0.68명으로 떨어져 0.7명대마저 깨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 출생국이라는 불명예를 한국은 어디까지 출산율이 내려갈 수 있는지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은 세금 수입을 줄이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지출은 급격히 늘어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 위기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구 절벽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저 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6년간 2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세계 최악의 저 출생 원인은 국민 모두가 다 안다. 청년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 낳아도 보육과 일 병행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다보니 청년들 사이에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바꾸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일자리, 부동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춰야 저 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17년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3년만인 2020년에는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1990년 출생자수 65만명과 비교해 한 세대 만에 58%가 줄어든 것이다.

한 세대간 인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조영태 서울대 교수)고 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 결국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예상보다 9년 일찍 왔다는 것이다.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18년(3746만명)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드는

중이다. 세금 낼 사람이 줄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경제 정책과 현행 복지 시스템은 지속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인구 절벽은 재정 절벽을 동반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 병력은 2023년 현재 우리 지상군이 36만여 명이고 북한이 110만여 명이다. 10년만 지나면 우리 육군이 29만 명, 20년 뒤엔 19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도 육군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0년 뒤엔 3배, 20년 뒤엔 5배 많은 적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전선을 지키겠는가? 드론과 AI로?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처음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압도적 병력 차이 때문임을 우리는 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130만 명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병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권은 과연 무얼 했나?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포퓰리즘 장난을 쳐왔다. 현 18개월 복무, 이 기간으로는 기본적 군 지식과 기량을 숙달하기도 어렵다. 익숙할 만하면 전역이다. 세계는 지금 군사력 증강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200년간 유지하던 스웨덴까지도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보여주ering는 것이다.

우리 군에는 지금 여군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차 조종, 특전사는 물론이고 금녀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까지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특등 스나이퍼(저격수)가 여군이다. 무려 3만 명의 여군들이 있고 최전방에도 배치된 상태다.

세계 각국은 군 병력증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사력 1위에서 10위 까지 미국이 독보적인 1위 국가다.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해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도 미군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으면서도 130만 명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창 26: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3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수 1:7)”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3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4년 5월 20일(월)

2. 등 록 : 5월 20일(월) 오전 11시부터

3. 개회예배 : 5월 20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20일(월) 오후 2시 30분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4년 4월 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병 목